










허클베리핀 진로탐험대

동아리활동 결과 보고서

신청자 (회장)	이 름 박소윤	학 번	20113
		핸드폰	010-2911-8603
지원분야	<input type="checkbox"/> 인문분야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연분야 <input type="checkbox"/> 예체능분야 <input type="checkbox"/> 인성,문화분야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)		
연수기간	2022.8.27	장소	전주
활동 내용 및 결과	<p>8.27일 활동 우선 조원들과 만나 전주로 이동하고 전북대 탐방에 나섰다. 전북대를 탐방 하다가 배가 고파져서 밥을 먹으러 옥쌘냉면에 갔다. 맛있게 밥을 먹고 예약한 도자기 공방 시간이 다 되어 빠르게 이동했다. 귀여운 루피 곰돌이 푸, 춘식이 접시를 각각 만든 후 한옥마을에서 객사로 이동하기 위해 공방에서 나왔다. 날씨가 너무 좋아 사진 한 장을 찰카 찍고 이동했다 객사엔 향수 공방을 예약한 상황이었어서 향수를 만들기 위해 ‘퍼센트’를 찾아 나섰다. 길을 좀 헤매긴 했지만 다행히도 무사히 도착했다. 좋은 향들도 가득 했고 취향이 아닌 향들도 많았다. 각자 취향대로 향수를 만들고 선생님께 추천 받은 중고 서점 ‘알라딘’에서 각자 진로에 맞게 책을 구매하였다. 열심히 활동을 한 탓인지 배가고파져서 이디야에 가서 간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휴식을 취한 뒤 객사에 돌아다니다가 우리의 책에 음식 중 하나인 곱창을 먹으러 갔다. 너무 맛있었다...!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타고 터미널로 이동하였고, 정말 간당 간당 터미널에 도착하였지만 무사히 버스를 타고 군산으로 돌아왔다. 이렇게 우리의 활동은 마무리되었다.</p> <div>          </div>		
소감 및 느낀 점	<p>20113 박소윤 : 친구들과 만나 전북대 탐방도 하고 캐릭터 접시도 만들고 향수도 만들고 평소에 이런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체험들을 통해 여러 직업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,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 재밌었다. 그 외에도 내 진로와 관련된 책을 구매하여 읽어보았는데 내 진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고 지식을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아 활동을 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것 같다.</p> <p>20116 유인선 :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면서 새로운 직업에도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었고 친구들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같이 체험할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.</p> <p>20121 이채윤 : 친구들과 함께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보며 다양한 체험에 임했고 전북대학교를 거닐으며 대학에 대한 설렘을 느끼며 대학생활에 대한 로망이 생겼고 꼭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친구들과 티타임을 가지며 진로, 미래에 대한 상담도 서로 해주며 평소에 못 했던 진솔한 이야기들을 더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. 진로 관련 책도 구입하여 각자 더 탐구하고 싶은 내용을 찾아보았다.</p> <p>20225 조윤아 : 평소에 쉽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공방 체험을 통해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고, 대학교를 직접 탐방하고 진로에 대한 책을 구입해 보며 서 진로에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탐구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 좋았다. 허클베리핀 활동을 통해 나의 진로뿐만 아니라 다양한 진로에 대해서도 탐구하게 되어서 좋았다.</p>		